

2018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중심적인 이상

메시지 8

한 새 사람의 창조자이신 비밀하신 그리스도 —
하나님의 비밀한 걸작품

성경: 창 1:26, 엡 2:14-16, 4:22-24

- I.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는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기 위한 단체적인 사람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— 창 1:26, 엡 2:15.
- A.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원수를 처리할 수 있게 하셨다 — 창 1:26.
 - B. 새 창조 안에서 새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항해 싸운다 — 골 3:10-11, 엡 2:15, 4:24, 6:10.
 - C. 옛 사람 안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것이 새 사람 안에서 회복되었다 — 창 11:5-9, 행 2:5-12, 골 3:10-11.
- II. 하나님의 시이자 걸작품인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 안에서 창조되었다 — 엡 2:10, 15-16.
- A. 우리는 15 절에 있는 "자기 육체 안에서"와 "그분 자신 안에서"라는 표현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 - 1. "자기 육체 안에서"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, 즉 사탄, 마귀, 하나님의 원수(히 2:14), 죄(롬 8:3, 요 1:29), 타락한 사람의 육체(갈 5:24), 세상, 코스모스, 사탄의 악한 체계(요 12:31), 옛 사람으로 대표된(롬 6:6) 옛 창조물, 율법에 속한 나누는 규례들(엡 2:15)을 종결하셨다.
 - 2. 영역과 요소와 본질인 "그분 자신 안에서"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.
 - a.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인 교회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범위이신 그 분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고 요소이자 본질이신 그분으로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.
 - b.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의 요소와 본질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로 만드셨다 — 비교 골 3:10-11.
 - B.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고 옛 사람이 십자가로 종결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, 곧 우주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항목,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되게 하셨다 — 롬 6:6, 고후 5:17.
 - 1. '걸작품'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'포이에마'로서 "시로 쓰인 것, 혹은 구성된 것"을 의미한다.
 - 2. 시적인 글만 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.
 - 3. 교회,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편의 시이다.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시이다 — 엡 2:10.
 - 4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— 고전 1:30.
 - a. 의(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다).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,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— 롬 5:18.

- b. 거룩하게 함(우리의 현재를 위한 것이다).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혼이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다.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있다 — 롬 6:19, 22.
 - c. 구속(우리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). 즉, 우리 몸의 구속이다.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— 롬 8:23, 빌 3:21.
5. 우리의 온 존재 — 영과 혼과 몸 — 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,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어퍼하심의 지혜로운 전람이 되게 하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.

III.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인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심으로써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— 엡 2:14-15 상.

- A. 15 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의식적(儀式的)인 계명의 율법인데, 주로 할례, 안식일을 지키는 것,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B. 규례들은 생활과 경배의 형식이나 방법들인데, 이것이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킨다.
 - 1.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생활과 경배에 관한 모든 규례, 즉 민족들을 나눈 규례들을 없애 버리셨다 — 엡 2:15, 골 2:14.
 - 2. 바벨의 때로부터 인류는 생활과 경배의 방법들에 관한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어 왔다.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바벨을 이겨야 한다 — 창 11:1-9.
 - a.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셔야 한다.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문화나 국적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— 비교 골 3:10-11.
 - b.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분화적인 차이를 명예의 근원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명예를 잃었다. 이제 우리의 유일한 명예는 그리스도이며 또한 진정한 하나이다.
 - c.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기꺼이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.

IV. 한 새 사람을 위해서와 한 새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— 엡 2:14 상, 15 하, 골 3:12-15, 2:14-18, 롬 5:1, 마 18:21-35.

- A. '판정을 내리다'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'심판을 보도록', '다스리도록', '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도록'으로 번역될 수 있다.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든 불만이 풀어지게 한다 — 골 3:13.
- B. 종종 우리 속에는 세 편의 당사자들, 즉 긍정적인 것, 부정적인 것, 중립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.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판정이 필요하다.
 - 1.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이러한 당사자들이 논쟁하거나 다투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하는 화평에 자리를 내주고 새 사람의 하나인 이 화평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.
 - 2.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관념을 제쳐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.
- C.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시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다.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야 하며 수직적으로 성도들과 화평을 가져야 한다.
 - 1.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림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사이의 불화는 사라진다. 그럴 때 교회 생활은 달콤하게 보존되며 새 사람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.
 - 2.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다스림을 행사하시고 최종적인 말씀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— 비교 사 9:6-7.
 - 3. 만일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그들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. 그보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과 함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.
 - 4. 이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야 하고 매는 띠가 되어야 한다 — 엡 4:3.

V. 한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— 골 3:10-11.

- A.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의 조성성분이다 — 골 1:27, 3:11.
1.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서 타고난 상태 그대로인 사람(어떤 종족, 국적, 문화, 혹은 사회적 신분)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여지도 전혀 없다 — 골 3:10-11.
 2. 우리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새 사람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두 아무 것도 아니다.
 3. 한 새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,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있다 — 골 2:17, 3:4, 11.
- B.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— 엡 2:15, 3:17 상.
1.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. 한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.
 2.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.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오직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— 갈 2:20, 엡 3:17 상.
 3. 한 새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옛 사람의 총체적인 인격은 반드시 제쳐져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— 롬 6:6, 갈 2:20, 엡 4:22, 24, 3:17 상.
 - a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는 분으로써 취함으로써 새 사람 안에서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.
 - b. 일단 우리가 한 새 사람의 일부인 것을 본다면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일들을 결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.
 - c. 우리는 우리가 몸이며 단체적인 새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의 생활(인격)과 우리의 움직임(생명)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— 고전 12:12, 롬 12:4-5.
 4.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 절에 있는 '한 새 사람'과 로마서 15장 6 절에 있는 '한 입'과 고린도전서 1장 10 절에 있는 '같은 것을 말하고'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 - a. 과거에는 너무나 많은 인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입들이 있었다.
 - b. "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"(롬 15:6)는 비록 우리들이 많고 모두가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"같은 것을 말한다"라는 것을 의미한다(고전 1:10).
 - c. 비록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.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한 인격을 가진 한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— 엡 2:15, 4:22-24, 3:17 상, 롬 15:6, 고전 1:10.